

급격히 인상된 관급공사 원자재 비용 지원 대책 마련

— 행안부,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
지방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 지원대책 마련 —

행정안전부(장관 원세훈)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이 지방 중소건설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업체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상승에 따른 관급공사의 계약금액을 인상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5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.

※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응급조치로 관급공사 발주시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해 자치단체가 직접 구매토록 지자체에 이미 통보('08. 3. 29)한 바 있다.

✧ 제도 개선 내용

관급공사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가격 인상 시 전체 자재품목의 가격이 3%이상 인상되어야 계약금액을 인상해주었던 종전의 규정에 추가하여 특정 단일품목 가격이 15%이상 인상된 경우도 계약금액을 인상(단품ES 방식)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.

※ 동 제도(단품슬라이딩제도)는 '07. 9. 20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, 금번에

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예규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에서 본격적인 제도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음

또한, 품목별 가격 상승을 파악이 곤란한 대형사업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지수조정율* 산출비목에 고용보험료,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, 국민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 등 그간 업체가 비용상승분을 계약금액 인상에 반영하지 못했던 항목들을 추가하여 업체의 비용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※ 지수조정율 : 대형공사는 수많은 품목이 자재로 사용될 수 있어, 이 경우는 개별품목별로 상승률을 파악하기 곤란하므로, 노무비, 기계경비 등의 비목으로 항목을 묶어 설정하고, 동 비목의 조정율을 지수화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식 적용(동 지수조정율도 3%이상 인상시 계약금액 인상 인정)

탄력적으로 반영됨으로써 원자재 가격급등 현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.

이번에 시행된 제도개선은 그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유관부처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관급공사의 경우도 동 제도가 적용되게 된다.

✧ 기대 효과

원자재 가격급등 현상 발생시 종전 기준에 따르면, 특정품목(철근, 시멘트 등)의 가격이 15%이상 인상되어도 전체품목의 가격 증가율이 3%이상이지 못하면 사실상 계약금액 인상이 어려웠던 경우가 말끔히 해소되어, 특정품목의 가격인상 요인도 계약금액 인상에 즉시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.

또한 지수조정율 산출항목에 기업체 비용 인상요인(실적공사비, 고용·국민건강보험료 등)이 추가되어 그동안 반영되지 못한 기업체의 비용인상도 계약금액에

✧ 적용 시기

단품ES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(2007. 9. 20)이후 입찰 공고하여 진행중인 계약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, 지수조정율 산출비목 추가 부분은 2008. 5. 15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된다.

※ 기획재정부는 단품ES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시행일(2006. 12. 29)이후 입찰 공고분으로서 개정예규시행일(2008. 5. 1)현재 계약이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. ☺



건강
상식

커피 날 땀 코를 풀지 마라?

커피가 나면 무조건 코를 틀어막아야 할까? 아니다. 코를 틀어막기 전에 코를 한 번 세게 풀어버리는 게 커피를 막는 최고의 방법이다. 뉴욕 맨해튼 이비인후과 병원의 카츠(Alvin Katz)박사에 따르면, 코를 강하게 확 풀어버려야 코 안에 응고된 핏덩어리를 모두 내보낼 수 있다. 만일 코 안에 응고된 피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코를 틀어막으면 커피가 멈추는 시간이 오히려 더 오래 걸린다. 왜냐하면 혈관은 탄력성이 아주

뛰어난 섬유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응고된 핏덩어리가 혈관 끝에 붙어 있으면 혈관이 오그라들지 못해 피가 계속 흘러나오게 된다. 캘리포니아대학(UCSD)의 헨더슨(John Henderson)박사도 '커피가 날 때는 한 번 힘을 쥐 세계 코를 푼 뒤 손으로 코를 누르면 커피가 빨리 멈추게 된다'고 강조한다.

「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」 중에서